



# 제24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개최

## 에너지 합리적 이용과 소비절약 의식고취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소비가 증가하는 동절기를 맞아 불안한 국제유가에 대응하는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도모하고, 범국민적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 한국전력공사 대강당에서 제24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촉진대회는 김석수 국무총리를 비롯 에너지관련 주요인사와 에너지절약 유공자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산업·가정·교육부문 등의 주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및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단체, 홍보, 기술개발 부문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가졌다.

코요롱 조정호 대표 은탑산업훈장, 도레이세한 김진년 상무 동탑

산업훈장, 삼성비피화학 박세훈 상무 철탑산업훈장, 두산 군포공장 권덕기 상무가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 남해화학, SKC 수원공장 등 40명이 각종 훈·포장과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에너지관계자 120명도 에너지절약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자들은 기업 등 에너지사용 현장에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하는 등 에너지절약에 앞장 선 에너지관리자들을 비롯, 각종 제도정비와 조사, 교육, 캠페인 활동, 행정지원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한 공무원, 사회단체, 교사,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절약 실천에 기여

한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석수 국무총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선 에너지 관계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매년 전체수입액중 에너지 수입이 24%에 달하는 우리 현실에서 최근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른 국제유가의 등락과 지난 10월 교토의정서의 국회 비준통과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세계기후변화협약은 우리경제 사회 모두의 에너지절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한 지금 에너지절약에 관한 시설투자 재원, 금리, 세제 및 기술지원 등 에너지절약 지원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력시장 감시위원회 발족

#### 불공정 행위 감시활동 개시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말 전기위원회 소속하에 전기사업자들의 전력시장 교란행위,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게 될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포함 7명의 위원을 위촉하였다.

이 위원회는 시장감시결과 시장참여자가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자율 시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법령 및 규칙 위반여부 감시, 시장감시기준 및 시장감시지표 결정, 종합시장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감시 계획수립, 시장감시보고서 작성, 시장감시 및 조사결과 전기위원회 보고, 규칙위반에 대한 자율시정조치 결정 및 시행, 기타 시장감시와 관련된 사항 결정 등이다.

한편, 감시위원회의 시장감시 업무와 위원회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감시위원회 소속하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며, 사무국에서는 전력시장감시·분석 및 협의 사실 발생시 조사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 바이오디젤(BD20) 시범보급사업 확대 추진

### 에너지자원 다원화 및 폐자원 이용 효율향상

산업자원부는 바이오디젤혼합유(자동차용 경유 80%와 바이오디젤 20%를 혼합한 연료, 이하 'BD20'이라 칭함)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전북도의 지정주유소에서 경유사용 전 차량에 대한 판매를 12월 1일부터 허용하여 BD20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BD20 시범보급사업은 지난 5월 25일 제정한 '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추진에 관한 고시'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출입하는 청소차량 등에 한하여 지정주유소 1개소에서 BD20을 판매토록 하였으나, 보급대상지역 및 대상차량의 제한 등으로 지난 5개월간 겨우 47천 l가 판매되었는데, 이 물량은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의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번에 BD20 시범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지역 및 차량을 확대한 것이다.

BD20 판매주유소 지정관리는 BD20 이용자의 편의성 및 품질관리를 고려하여 각각의 석유정제업자 및 바이오생산업자가 시범보급 대상지역(서울, 인천, 경기, 전북)내의 읍면동 단위로 각1개씩을 산업자원부에 BD20 판매주유소를 지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주유소는 경유사용 전 차량에 12월 1일부터 BD20 판매가 제한없이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BD20 시범보급사업 확대조치를 통하여 2003년까지 대체에너지 보급목표 2%달성에 기여하고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

고 있으며, 나아가 바이오디젤의 지속적인 생산과동 및 기술개발 등의 기반을 마련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원화 및 폐자원 등의 이용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90년대부터 일반주유소에서 경유 대체용 연료로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이번에 수도권 및 전북도를 대상으로 BD20 시범보급사업을 2004년 5월 24일까지 실시후,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의 확보효과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보아 BD20을 전국의 일반주유소에서 본격적으로 시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국내최초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개소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기반 마련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온수기에 대한 성능, 내구성, 신뢰도 등을 검증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개소식이 지난 11월 14일 광주광역시, 산업자원부 기획관리실장, 조선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조선대학교내 실증연구단지에서 개최되었다.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는 산업자원부, 광주광역시와 LG 산전 등 민간기업이 총15억원을 투자하여 조선대학교

내에 건설한 것으로 대체에너지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의 연구단지이다.

실증연구단지에는 50평규모의 연구실험동, 계통연계용 변전설비, 모니터링 설비, 급배수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개소식을 가진 태양에너지 실증연구단지는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산업자원부가 대체에너지 실용화 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태양광 및 태양열 기술분야의 실증연구를 위한 인프라 시설로 활용된다.



## 2010년까지 전기화재 비율 15%대로 감축 전기안전문화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 결의

산업자원부는 지난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박상규 산업자원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전기안전관련 업계 종사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기안전축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기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 및 전기안전결의문 채택을 통해 책임의식 제고 및 범국민 전기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1995년도부터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기화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국가들중 하나로써 지난해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458명으로 전체 재해중

19.3%, 재산손실은 전체 재해중 40%인 679억원에 달한다.

신국환 장관은 치사를 통해 수상자 및 전기사고 방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우리나라 전기화재가 지난해말 기준 총 화재중 3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2.4배, 일본의 2.8배나 되는 등 전기안전 관리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2010년까지 전기화재 점유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대로 대폭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전기화재 등 전기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인

감축을 위해 지난 7월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와 대규모 점포 등 전기사고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의 집중적인 안전관리 등 8대시책을 내용으로 한 전기화재 종합 감축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기술인협회 안인순 회장이 동탑산업훈장, LG산전 이경행 총괄부사장이 석탑산업훈장, 한국전력공사 심순보 처장 등 3명이 산업포장 그리고 전기안전 향상을 위해 산업계 및 학계,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을 쌓은 전기안전 유공자 58명에 대해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 에너지절약형 아파트 확대 보급 시행

####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증대 제고 추진

산업자원부는 전체 에너지의 23%를 소비하는 건물분야의 에너지 효율증대를 제고하고,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기후변화협약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통하여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를 확대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는 금년 9월 23일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등촌동에 건설 예정인 임대아파트(전용면적 15평, 18평)에 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승인하였다.

이 건물은 임대아파트에서는 최초로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는 것으로 주택공사에서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서민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우리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준형 아파트에 비하여 총에너지 소요량의 약31.3%나 절감되는 에너지절약형 아파트로서 입주민들의 난방비 부담 경감으로 경제적인 주거환경은 물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7.8%나 저감시킴으로서 쾌적한 주거문화 형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금번 주공아파트에 건물에너지 효율 예비 2등급 인증을 실시하면서 건물부문의 효율등급 인증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대폭 확대 시행 연간 연료 5천TOE이상 및 전력 2천만kWh이상 시설규모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의 규모가 연간 1만 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연료 및 열 또는 연간 4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에서 연간 5천TOE 또는 2천만kWh 이상으로 축소되어 협의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분양 공고시 에너지사용 계획 협의대상 사업임을 공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란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에너지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에너지관련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별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에너지저소비형 사회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금년 9월 26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주관자는 연간 5천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거나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사업주관자가 시행하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의 절반

으로 축소함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건수는 현재 연간 약 20건에서 85건으로 4배이상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은 약 1백만 toe, 금액으로는 약3천억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후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분양받을 사업자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임을 함께 공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분양받은 사업자와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율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 국내최초 대규모 상업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

#### 강원풍력발전 2,000kW급 풍력발전기 49기

지난 11월 2일 국내 최초의 상업적인 풍력발전단지 기공식이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김진선 강원도지사,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관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에 기공식을 가진 강원풍력발전단지는 강원풍력발전(주)가 약 1,450억원(국내 647억원, 해외 803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11월까지 2,000kW급 풍력발전기 49기를 설치, 총 98MW의 상업적인 풍력발전설비를 갖추게 된다.

강원풍력발전단지 규모는 지금까지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용량(7.4MW)의 13배로 풍력발전에 의한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강원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제주도, 전남 신안,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등 풍황이 우수한 지역에서 민자에 의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풍력발전의 개발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5월에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에 대해 전력거래시장 평균가격 48.80원과의 차액(58.86원)을 지원하는 발전차액 보전제도를 도입 시행하였다.

또한 풍력분야를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3대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1단계(01~04)로 750k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단계(05~07)에서는 1.5MW 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